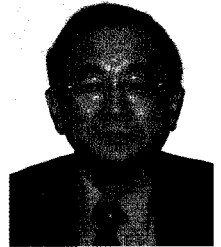


일본은 변화할 수 있을까?

— 앞으로 일본을 짊어지고 나갈 3·11세대 —



이데 요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사회의료법인 눈의 성모회 성마리아병원 이사장

† 주님의 평화

올해도 일본은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매우 혹독한 더위가 지속되었습니다만, 올해의 더위는 작년보다 10일 빨리 끝난 장마와 더불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은 많은 국민이 염원했던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소식에 무더위의 여름도 날려버릴 정도의 환호 열기가 넘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8년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거국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결정에 관한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평창은, 일본과 한국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준 한국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유명하여 특히 일본여성들이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평창을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쓰나미, 원자력발전소의 재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복구작업에 관하여 말씀 드리자면, 재해로 인한 이재민의 가설주택의 건설, 항만관계시설, 도로 등 복구활동에 가속도가 붙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용해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복구 및 정지작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계속되는 여진으로 일본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54기)의 안전 대책 모색과 해당 지역주민의 설득작업 등 각종 문제들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 말을 기점으로 현재 재해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피해는 사망자 15,506명, 행방불명자 7,297명, 부상자 5,386명입니다. 건축물 피해는 전체붕괴 105,074채, 반 붕괴 104,765채, 일부 파손 400,440채입니다. 그리고 이재민 수는 112,405명입니다. 이번 재해의 가장 불행한 일은 재해 발생 후 4개월 동안 열심히 조사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수의 행방불명자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저희 성마리아병원의 임직원들은 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재해를 당한 이와테현 리쿠젠타카타시에 진료소를 개설하여 6월 30일까지의 료지원 팀을 파견하였습니다. 의료지원 팀 파견의 구성은 의사 포함 10명의 스태프로 편성하여 총 2,273명의 피해지역 주민에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파견자수는 실 인원 127명에 이르렀고 단독 의료 기관으로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많은 인원을 파견한 곳은 일본 내

에서 저희 병원이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파견 활동도 저희 병원의 가톨릭이념을 바탕으로 한 진료활동의 성과이며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의 오래된 교류와 여러분의 기도, 지원, 협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성마리아병원의 직원을 대표하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본의 4월은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달입니다. 입학 직전에 일어난 3월 11일의 재해는 일본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 재해의 영향에 대해 학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 92.2%의 학생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번에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답했으며 89.0%의 학생은 “생명의 귀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81.5%의 학생은 “일본인의 강함을 느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재해’가 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해 준 자료였습니다.

올해 신입생은 수년간 지속된 일본의 경제불황 속에서도,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내온 젊은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과 원자력발전소의 재해를 계기로 그간의 평온한 생활이 한꺼번에 붕괴되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일본을 젊어지게 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3.11 세대”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재해 발생 후 도로, 철도, 수도, 가설주택 등의 복구 작업으로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재해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관해 원활한 정보 지원과 원자로 정지에 관한 늦장 대응이 지난 몇 년 간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에 가중되어 또 다시 일본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다양한 분야의 국민건강과 관련된

긴급대책, 특히 방사선 피폭문제를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었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재해와 관련된 후쿠시마 현 전 주민(202만 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비롯해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에게 약 10년간 장기적인 암 검진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건강진단에 약 960억 엔의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방사능 오염은 식품관계·상하수도·대기·해수·토양 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해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를 경험한 아이들이 일본 곳곳에서 건강하고 밝은 표정으로 지내고 있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힘을 얻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책 안이 빠르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원자로 냉각상태의 조치와 수습이 가장 시급한 실정으로, 피폭된 원자력발전소에서 목숨을 걸고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요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저희 성마리아병원도 발전소 내에 설치되는 진료소로 전문의를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전체 전력의 30% 공급을 점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적인 계획정전이 검토 시행되었습니다. 기업 등의 에어컨 온도 설정 변경, 가정에서의 절전 대책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생산을 조정하고 전력소비가 적은 주말 조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의 생산을 확대시키는 등 일본 사회 전체가 변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겠지만, 당면한 재해복구와 향후의 부흥대책을 보여주는 것만이 세계 각국에 대한 책무이자 사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가톨릭이념’에 바탕을 둔 운영과 대책을 한층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 협력,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日本は変わることができるか？

— 将来日本を担う3. 11世代 —

社会医療法人 雪の聖母会
聖マリア病院
理事長 井手 義雄

† 主の平安

今年も日本は暑い夏を迎えようとしています。昨年にも猛暑の日々でありましたが、今年の梅雨は例年と比較すると10日早く明けました。韓国の皆様がたにおかれましては、国際的なビッグなプレゼントでこの暑い夏も吹き飛ばすような熱気で溢れていることと思います。2018年韓国平昌での冬季オリンピック開催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国を挙げての成果と思います。この冬季オリンピック開催決定は日本でも大きく報道されました。日韓の距離を大きく狭めた「冬のソナタ」のロケ地とのことで、日本国民特に日本の女性が一度は訪れたい都市ですのでオリンピックに多くの日本人が参加することと思います。

さて、3月11日に発生致しました日本の地震、津波、原子力発電所の災害に伴う復旧作業ですが、災害による避難民への仮設住宅の建築、港湾関係、道路等復旧活動が加速度的に進行しています。ただ、現在最も対策が遅れている災害は、メルトダウンした原子力発電所の原子炉の復旧、停止作業であります。また、地震の余震が引き続き生じているために、日本国内に設置されている原子力発電所(54基)の安全対策、地域住民への説明等種々国内での議論が活発に行われています。

6月末時点での災害被害状況ですが、人的被害は死者15,506名、行方不明者7,297名、負傷者5,386名です。建築物被害は、全壊105,074戸、半壊、104,765戸、一部損壊、400,440戸となっています。避難者は、112,405名となっています。今回の災害で不幸な出来事は、災害発生後4ヶ月の懸命な捜査活動にも拘わらず多くの行方不明者がいらっしゃる事です。この間、3月21日より私どもは地震、津波の災害で壊滅的な被害を受けた岩手県陸前高田市で診療所の開設を行い6月30日まで医療支援チームを派遣致しました。派遣は、医師を含めて10名のスタッフで編成し、延べ2,273名の被災者の診療を行いました。派遣者数は実人員127名に及び、単独の医療機関で長期かつ実人員の派遣は、日本で私どもがトップクラスの機関でありました。この活動も、当院のカトリック理念に基づく診療活動の成果であり、韓国カトリック医療協会との長きに及ぶ交流、皆様方のお祈り、ご支援、ご協力の賜物といたします。あらためて職員を代表し皆様方に感謝を申し上げます。

3月11日の震災は日本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た。4月には

日本の大学に多くの若者が入学致しました。入学した学生に対し入学直前に起こった震災の影響のアンケートが実施されましたが、約1000名に対する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92,2%の学生が「人々の助け合いの大切さを強く感じた」、89,0%の学生が「生命の大切さをあらためて感じた」、81,5%の学生が、「日本人々のたくましさを感じた」と回答しています。震災を正面より捉え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今年の新入学生は、この数年間の日本の経済不況にも拘わらず、日常的には平穏な学生生活を経てきた若者ですが、この震災、原子力発電所災害を契機に平穏な生活が一気に崩壊することを直接見て、衝撃を受けたことが分かります。今後の日本を担う新しい価値観を持った「3, 11世代」と呼べるかと思えます。災害発生後、復旧に向けての道路、鉄道、水道、仮設住宅等のインフラ整備が行われていますが、原子力発電所の災害はより一層深刻な状態となっています。原子力発電所事故の情報の遅れまた原子炉停止対応の遅れは、この数年続いている政治の混迷のため、国民により一層の不安を投げかけています。政治の混迷は種々の健康上の緊急対策、特に放射線被爆問題を遅らせる結果となりましたが、原子力発電所の災害に伴う福島県の全住民(202万人)に対する健康診断、また中学生以下の子どもに対して10年程度の長期的なガン検診等が実施される予定であります。これらの健康診断に約960億円の国家予算が投入される予定です。また、放射能汚染は、食品関係・水道水・大気・海水・土壌等への問題に拡大しています。被災地での想像を絶する恐怖を受けた子供達ですが、日本のあらゆるところで元気な様子で明るく活動している姿に多くの国民が励まされていますが、忍び寄り子供たちへの放射能汚染対策が急務となっています。原子炉の冷温措置による収束が当面の課題ですが、被災した原子力発電所で懸命に復旧作業を行っている作業員の健康管理のため、当院よりも発電所内への診療所へ専門医を派遣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日本の電力の30%の供給を占める原子力発電所の問題は、全国的な計画停電の実施が検討され始めました。企業等におけるエアコンの温度設定の変更、家庭での節電対策も奨励されています。工場等では生産調整や電力消費が少ない土曜日、日曜日の操業、さらには海外での生産の拡大など日本の社会全体が変革し始めています。今後日本は種々の困難な状況に遭遇致しますが、災害復旧また将来に向けた復興対策を示していくことが、世界各国に対する責務とお詫びと思えます。そのためにも私どもは、「カトリックの理念」に基づく運営、対策をより一層強化してまいります。今後とも皆様方の変わりぬご支援、ご協力、お祈りを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神に感謝